

Global Trade Report

2018년 7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개요

2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
2	지역별 수출 동향
3	품목별 수출 동향
3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4	중국
6	미국
8	베트남
10	일본
12	인도
14	ASEAN
16	EU
18	중남미
20	중동
22	CIS
24	참고1 : 지역별·월별 수출 실적(표)
25	참고2 : '18년 7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표)
26	참고3 : '18년 7월 지역별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표)
27	참고4 :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별 수출 동향(그래프)

요 약

- **(7월 수출입 동향)** 수출 518.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2%), 수입 449.4억 달러(+16.4%), 무역수지 69.1억 달러 흑자 기록

< 7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출	488 (+19.4)	3,279 (+16.3)	511 (△0.3)	519 (+6.2)	3,486 (+6.3)
수입	386 (+15.7)	2,728 (+20.5)	450 (+10.9)	449 (+16.4)	3,102 (+13.7)
무역수지	102	551	61	69	38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對ASEAN·인도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특히 중국·중남미·중동·CIS·일본 5개 지역은 두 자리 수 증가율 달성

국가	호조품목	부진품목
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전
미국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차부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컴퓨터, 석유제품
베트남	평판디스플레이, 섬유류,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일본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인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ASEAN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선박류, 자동차
EU	일반기계, 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중남미	선박류,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차부품, 자동차, 일반기계, 평판디스플레이
중동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차부품, 섬유류
CIS	일반기계, 자동차, 차부품, 철강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제품·평판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섬유류·컴퓨터) 수출 증가, 반도체는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 일반기계·석유화학도 40억 달러 이상 수출(각각 5개월, 8개월 연속) 기록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2018년 7월에는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전년동월대비 각각 13.4%, 3.8%, 0.4%), 수출비중은 대기업(64.8%), 중소기업(18.8%), 중견기업(15.1%) 순으로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3%p 증가

* 수출증감률(2018년 7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13.4%) > 대기업(3.8%) > 중견기업(0.4%)

*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 2017년 7월(33.6%) → 2018년 7월(33.9%)

I. 개요

- **(7월 수출입 동향)** 수출 518.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2%), 수입 449.4억 달러(+16.4%), 무역수지 69.1억 달러 흑자 기록
- 지난해 7월 대규모 선박 수출(해양플랜트 2척 포함 60.9억 달러)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월간 사상 2위 수출실적 기록,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기록(3,486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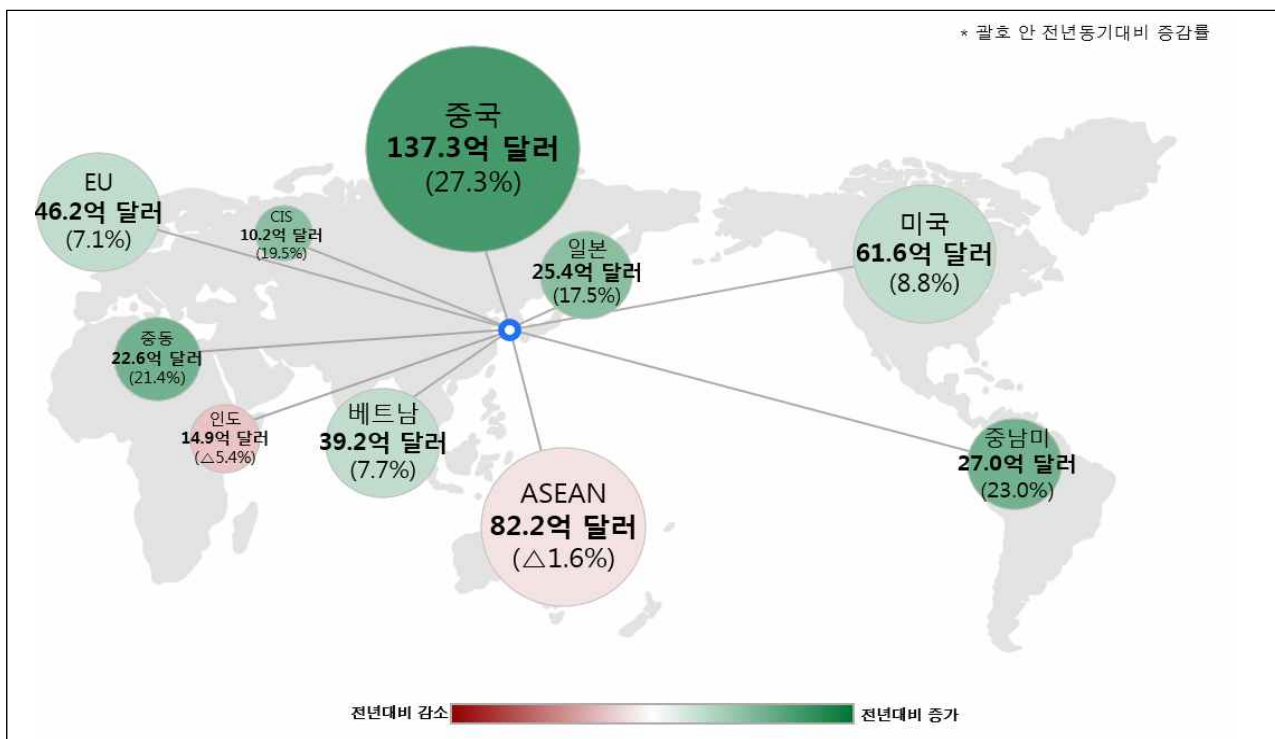
< 7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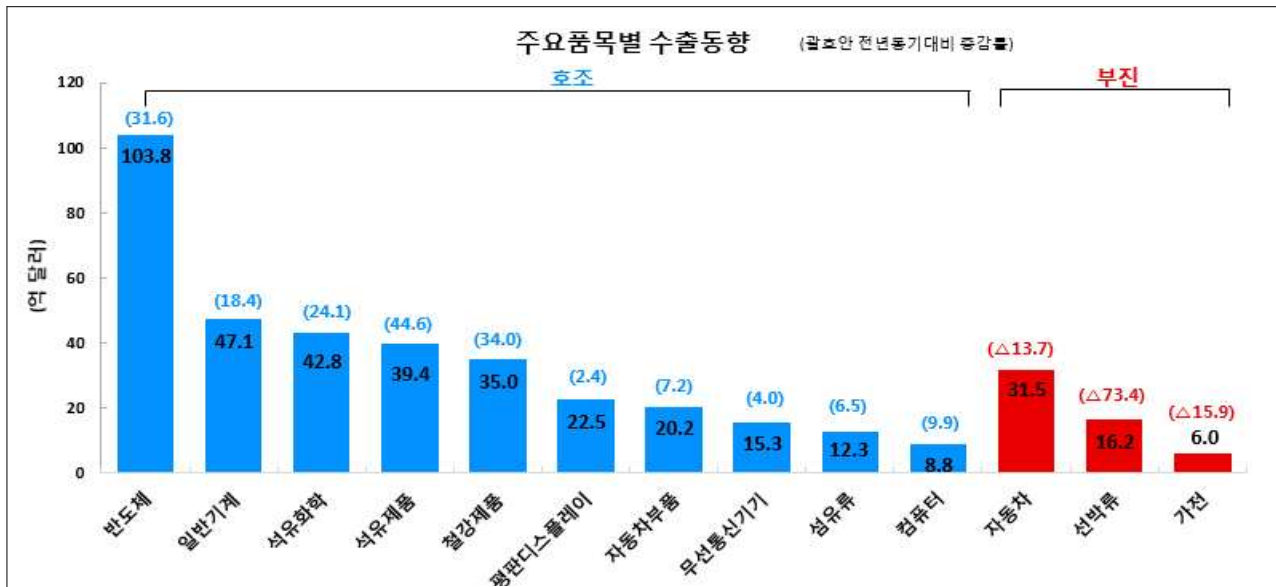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488 (+19.4)	3,279 (+16.3)	511 (△0.3)	519 (+6.2)	3,486 (+6.3)
수 입	386 (+15.7)	2,728 (+20.5)	450 (+10.9)	449 (+16.4)	3,102 (+13.7)
무역수지	102	551	61	69	38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對ASEAN·인도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특히 중국·중남미·중동·CIS·일본 5개 지역은 두 자리 수 증가율 달성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제품·평판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섬유류·컴퓨터) 수출 증가, 반도체는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 일반기계·석유화학도 40억 달러 이상 수출(각각 5개월, 8개월 연속)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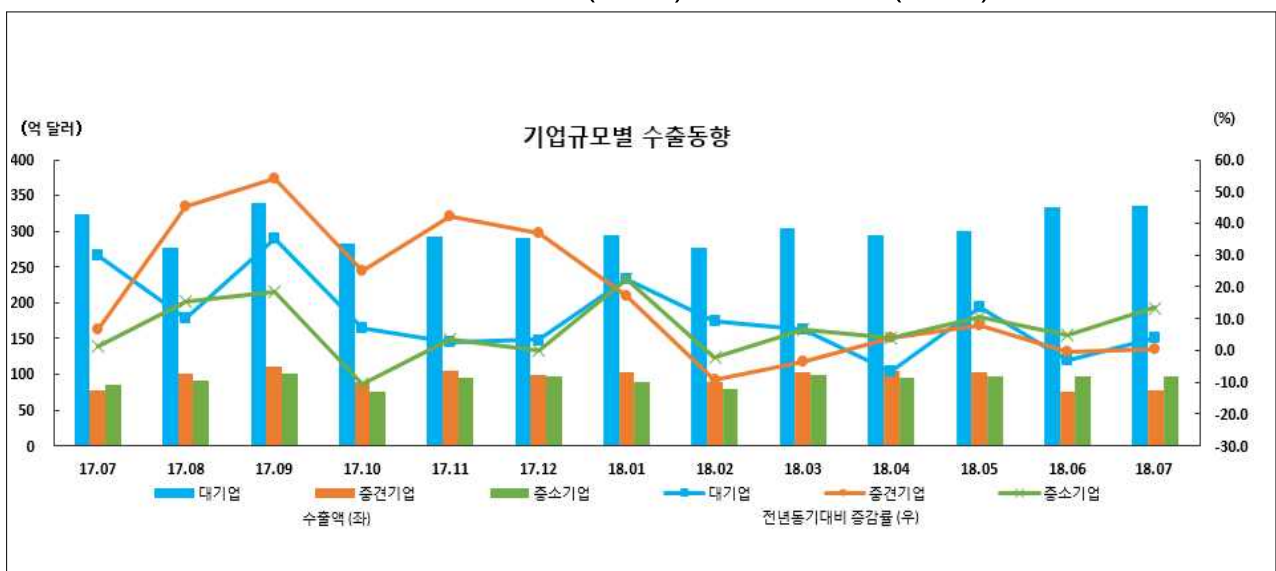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2018년 7월에는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전년동월대비 각각 13.4%, 3.8%, 0.4%), 수출비중은 대기업(64.8%), 중소기업(18.8%), 중견기업(15.1%) 순으로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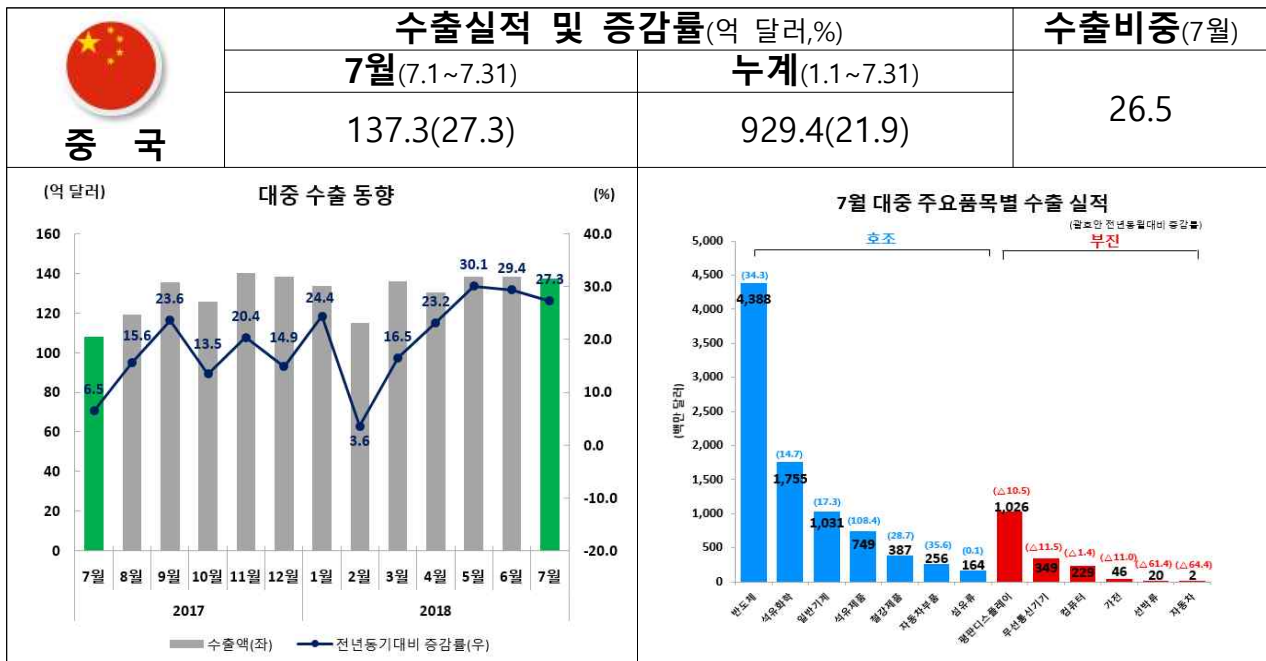
* 수출증감률(2018년 7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13.4%) > 대기업(3.8%) > 중견기업(0.4%)

*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 2017년 7월(33.6%) → 2018년 7월(33.9%)



*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및 특이동향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만 산업생산·투자·소비·교역 호조로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월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하여 석유화학·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세로 전월에 이어 또다시 수출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27.3%)을 달성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석유제품·철강·자동차부품 등 7개 품목의 수출 증가, 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는 수출 감소

- **반도체 (34.3% ↑)** :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서버 투자 확대 및 전자시스템 내 반도체 사용 비율 증가로 수출 호조세 지속

현장 정보

- * 휴대폰 및 PC 출하량 등 기존 주요 반도체 사용 분야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반도체가 사용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5,091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전자시스템 내 반도체 사용 비율은 31.4%로 2017년의 28.8%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IC Insights)
- * 중국의 반도체 설비시장 규모는 2018년에 대만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서고, 2019년에는 173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SEMI)

- 석유화학제품(14.7% ↑)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페플라스틱 수입금지 등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조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일부 제품의 공급이 줄면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함.
- . 지난해 중국 정부가 석탄 채굴을 규제해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이어, 올해는 페플라스틱 수입까지 금지하면서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됨.

- 일반기계(17.3% ↑) : 중국이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스마트 제조 산업이 급성장하여 기계류 수입 수요 확대돼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2018년 상반기 제조업 생산규모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이에 따른 기계 및 부품 수요 증가 추세 .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전략적 신흥 공업 부분은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했으며, 생산제조 분야의 설비 업그레이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기계류 수입 수요 확대 (중국 국가통계국)
- * 최근 중국의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첨단 장비를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은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특히 제조업 분야 첨단부품은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한국 제품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 장점이 있어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있음. (Zhangjiagang Cimc Sundain Cryogenic Equipment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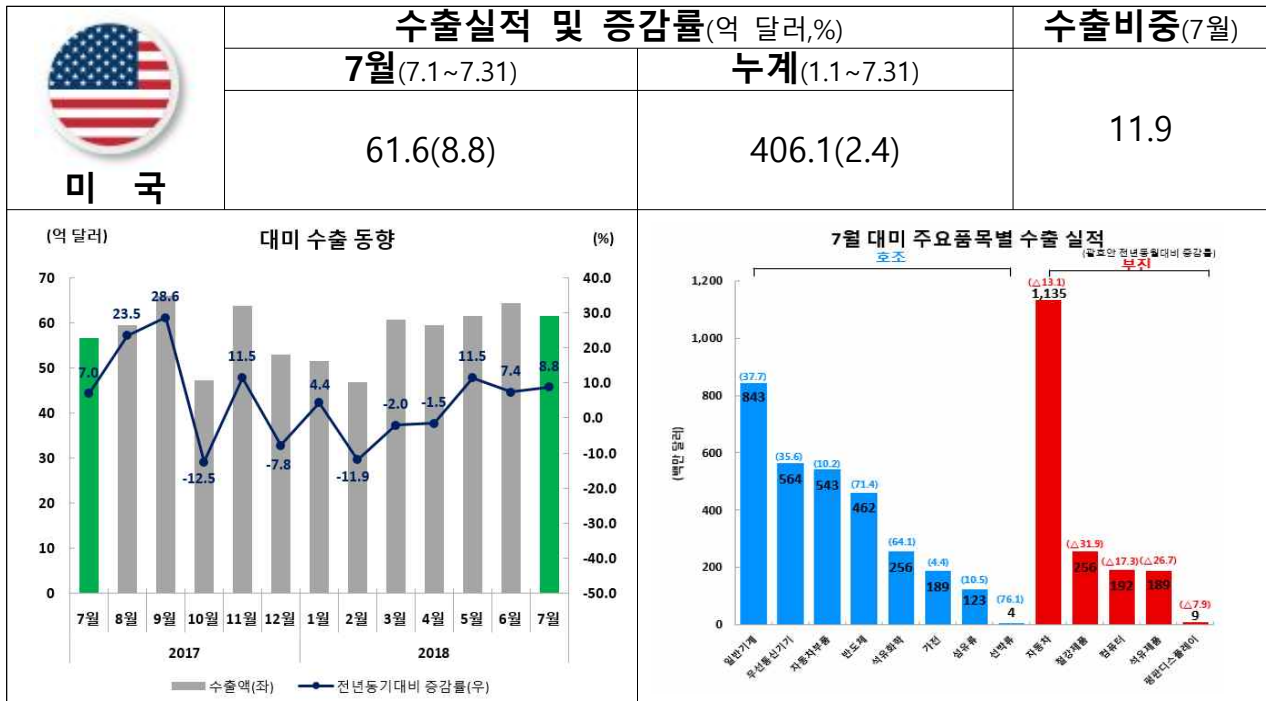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11.5% ↓) : 중국 브랜드 인지도 강세 및 중국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2018년 2분기 VIVO의 'NEX'와 OPPO의 'Find X'의 출시에 힘입어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이지아(一加), 룡후이(榮輝) 등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인지도가 삼성보다 높음.
- . 삼성은 브랜드 인지도 4위에서 6위로 하락 (中国通信院)
- . 스마트폰 모델별 판매량 순위에서도 애플의 'iPhone X'(4위)를 제외하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중국산 브랜드 모델이 차지했으며, 또한 오프라인 판매량 순위에서도 삼성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8위를 기록하고 시장점유율은 1.4%에 불과 (第一手机研究院)
- * 7월 샤오미의 'MAX 3', 화웨이의 'NOVA 3', 룡후이의 'play', 이지아의 '一加6' 등 중국 스마트폰 업계 기대작들이 연달아 출시되어 중국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됨. (Techweb)

□ (특이동향)

- 중국 반도체기업 허페이창신, 8Gb LPDDR4 DRAM '테이프아웃(생산 준비과정 완료)' 발표(7.16), 시범생산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양산 전망
- * '19년 말 월 2만장 생산, '20년 2공장 건설, '21년 17나노미터 기술개발 목표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고용시장 안정, 산업 생산과 소비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중국·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하방리스크로 우려되는 가운데, 7월 對미국 수출은 수입규제로 인한 자동차 철강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차부품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8.8%의 증가율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반도체·석유화학 등의 수출은 증가, 자동차·철강·컴퓨터 등은 수출 감소

○ **일반기계(37.7% ↑)** : 미국의 제조업·건설경기 호조, 對중국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제3국산 수입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6월 미국 산업생산은 광업, 원유 및 가스 채굴, 유틸리티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0.6% 증가로 반등했으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전월대비 1.5포인트 상승한 60.2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 중장비 제조업체들은 對중국 관세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 제3국 공급업체를 발 빠르게 찾고 있음.
· 현재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 있는데, 특히 강철 유압 튜브, 굴삭기의 핀, 링크, 버킷 등 언더 캐리지 관련 부품들에 대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를 희망함. (농기계 중장비 제조업체 K사)

- **무선통신기기(35.6% ↑)** : 5G 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통신 장비·설비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미국의 모든 주요 무선통신사는 2018년 말까지 5G 무선통신망 출시를 목표로 5G 기술과 장비를 시험하고 있어 관련 통신장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 향후 수년간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5G 무선통신 투자는 2,75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리서치 기관 Accenture Strategy)

- **반도체(71.4% ↑)** : 엣지(edge) 컴퓨팅용 마이크로 서버, 데이터센터 등 서버용 메모리 수요 지속 확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엣지(edge) 컴퓨팅 :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클라우드 서버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달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처리 등 주요기능을 사용자 기기와 가까운 네트워크의 가장자리(edge)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구조를 의미. 데이터가 수집되는 엣지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
- * 하반기에는 고성능 스마트폰 및 기업용 데이터센터에서 DRAM의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채굴 감소로 그래픽용 DRAM의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노트북 시장의 성장 둔화, 스마트폰 시장의 성능 업그레이드 부족 및 교체 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한 편이나, 새로운 iPhone 모델 판매 호조와 서버용 DRAM 수요가 지속된다면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전망 (시장 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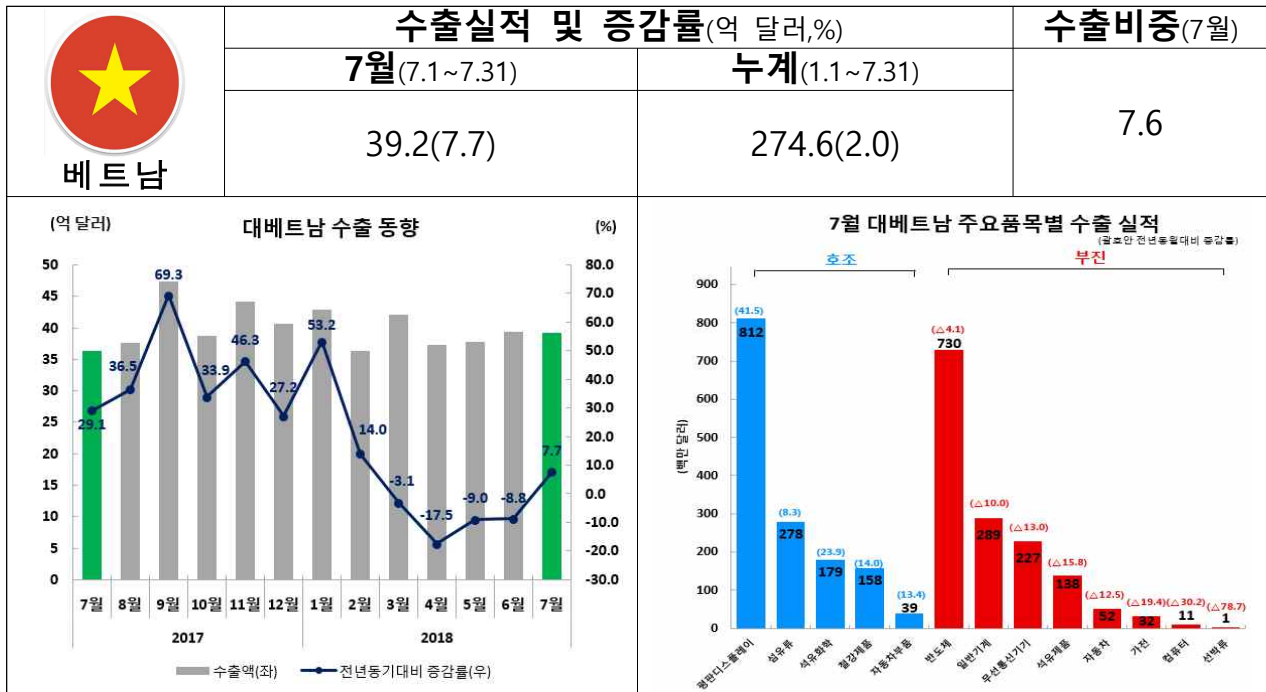
- **자동차(13.1% ↓)** : 소형 SUV 등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중소형 세단)에 대한 수요 부진 및 한국GM의 생산차질 영향으로 수출 소폭 감소

현장 정보

- * 미국 소비자들의 SUV 차종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 미국의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기존의 대형 SUV 대신 소형 크로스오버 SUV 및 하이브리드 SUV 차종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현대와 기아의 신형 크로스오버 및 소형 SUV 차종 신규 출시는 향후 매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SUV 판매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The Truth About Cars, Auto News, LA지역 딜러)
- * 한국산 GM 차량의 수출 물량(Buick 양코어, Chevy 스파크)은 정체되고 있으며, 최근 현대·기아의 판매실적 상승(쏘울, 투싼, 코나)으로 수출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부진한 상태임. (GM 관계자)

□ (특이동향)

- 상무부, 한국산 강판 사용해 만든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對美 우화수출여부 조사 개시(7.2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18년 상반기 GDP 증가율 7.1% 달성하는 등 생산·소비·교역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경제 성장세 지속되는 가운데, 7월 對베트남 수출은 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섬유류·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증가(7.7%)로 전환
- **(품목별 동향)** 평판디스플레이·섬유류·석유화학·철강 등 5개 품목은 수출 증가, 반도체·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자동차 등 8개 품목은 수출 감소
 - 평판디스플레이(41.5% ↑) :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른 모바일용 OLED 수요 확대에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對베트남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약 60%, LCD 약 35%의 비중으로 수출되고 있음. OLED는 모바일기기 부품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하나로 TNS)

- **섬유류(8.3% ↑)** : 베트남 의류 생산 증가 및 수출 호조로 직물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 등 모든 부문에서 對베트남 수출이 증가했으며, 이 중 직물 수출이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미국 등으로 베트남의 의류제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베트남 내 의류 제품 생산을 위한 직물 수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 2018년 1~6월 베트남 의류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했으며, 의류제품 수출 역시 13.8% 증가함. (베트남 통계청)

- **무선통신기기(13.0% ↓)** : 현지 부품 조달 확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현장 정보

- *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2차 부품 모두 한국에서 수입했으나, 부품 협력사들이 베트남에 대거 동반 진출하면서 베트남에서도 부품 소싱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 수요가 감소함.
- * 또한, 부품 소싱 대상 기업을 베트남 기업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 2018년 7월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SEV)의 베트남계 1차 협력사는 29개사이며, 2018년 말까지 35개, 2019년 42개, 2020년 50개로 지속 확대할 계획임. (현지 언론 Vietnam Investment Review)

- **자동차(12.5% ↓)** : 베트남 정부의 수입자동차 규제조치(VTA 인증서 및 품질 안전 테스트 요구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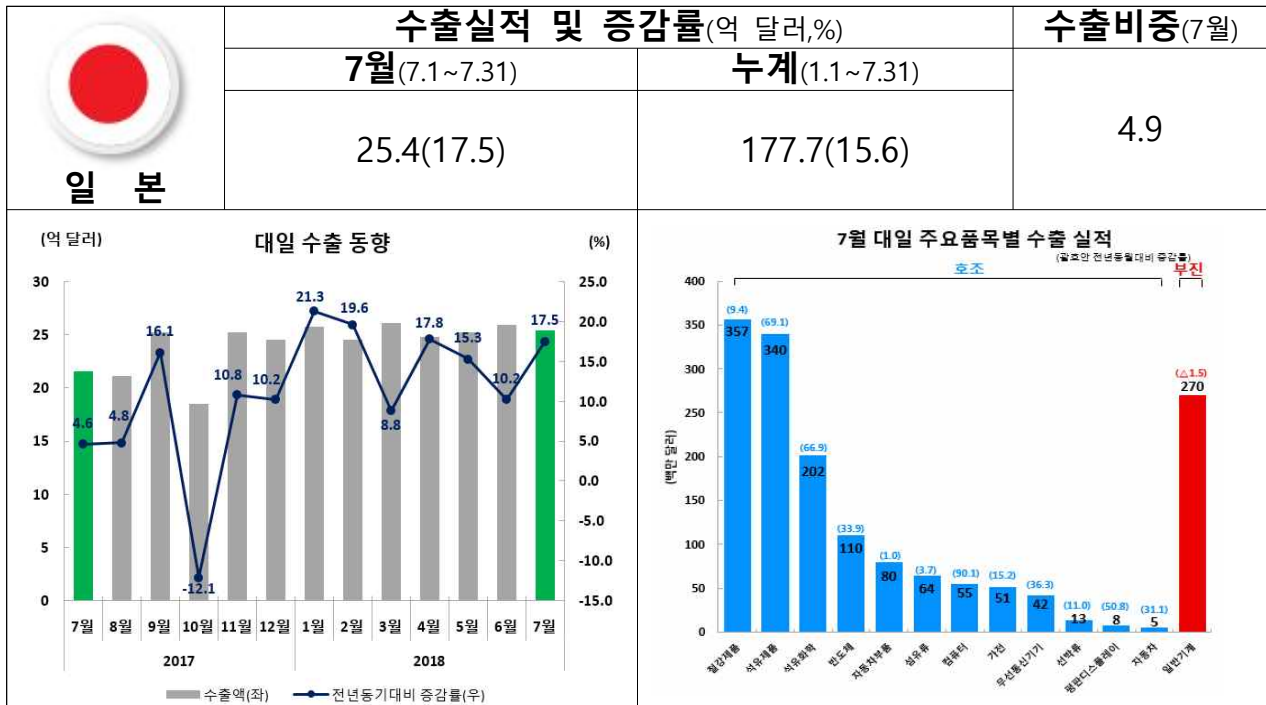
현장 정보

- *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및 국내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자동차에 대해 각종 규제를(VTA 인증서 요구 및 모든 차량에 대한 품질 안전성 테스트 시행 등) 강화함.
- * 이에 따라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량 및 수입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으며, 한국의 對베트남 자동차 수출도 감소함.
· '18.1~6월 기준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량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9%, 70.2% 감소함.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수입자동차 판매량 역시 부진했는데, '18.1~6월 기준 베트남 완성수입차(CBU) 판매량은 18,981대로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함.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

□ (특이동향)

- **미중 무역 분쟁으로 베트남 내 중국 제품 증가 우려**

- *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으로 중국 제품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중국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 * 가격에 민감한 베트남 소비자들 저렴한 중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경우,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판로 확대에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설비투자 확대, 고용·소득 여건 개선,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되는 가운데 7월 對일본 수출은 철강제품과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7.5% 증가하여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달성
- **(품목별 동향)**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부품 등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일반기계만 수출 감소
- **철강제품(9.4% ↑)** : 전세계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2020 도쿄 올림픽 관련 건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미중 무역 마찰로 전세계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내 철강 특수로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도 증가
- * 미국에서는 제품 부족으로 철강가격 폭등(작년말 대비 40%이상 상승)함에 따라 추가 관세를 지불해도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며, 2분기 기준 미국을 포함한 해외수출이 전년동기비 25% 증가함. (도쿄제철)
- * 하반기에는 일본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철강제품 수출도 증가세 지속 예상 (포스코)

- 석유제품(69.1% ↑) : 일본 정유업계 구조개편 및 탈석유화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일본 에너지 회사는 탈석유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추진
 . JXTG는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 대비, 선수촌 등에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운영할 예정
- * 일본 석유업계는 2019년 4월 이데미츠와 아키라 쉘의 합병이 실시되면 JXTG와 2강 체제로 개편되며, 과당 경쟁 발생 가능성이 축소되므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
- * 인구감소와 자동차 연비 개선 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예상
 . 일본 내 주유소 수는 1994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 휘발유 판매량은 2021년까지 10% 감소 예측

- 반도체(33.9% ↑) : 일본 내 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PC나 스마트폰 수요뿐만 아니라 IoT나 AI, 자율운행 등으로 데이터 활용 분야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는 증가 예상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
- * 일본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메모리 증산을 위한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18년에 전년대비 32.2% 증가한 85.8억 달러로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 (국제 반도체장비재료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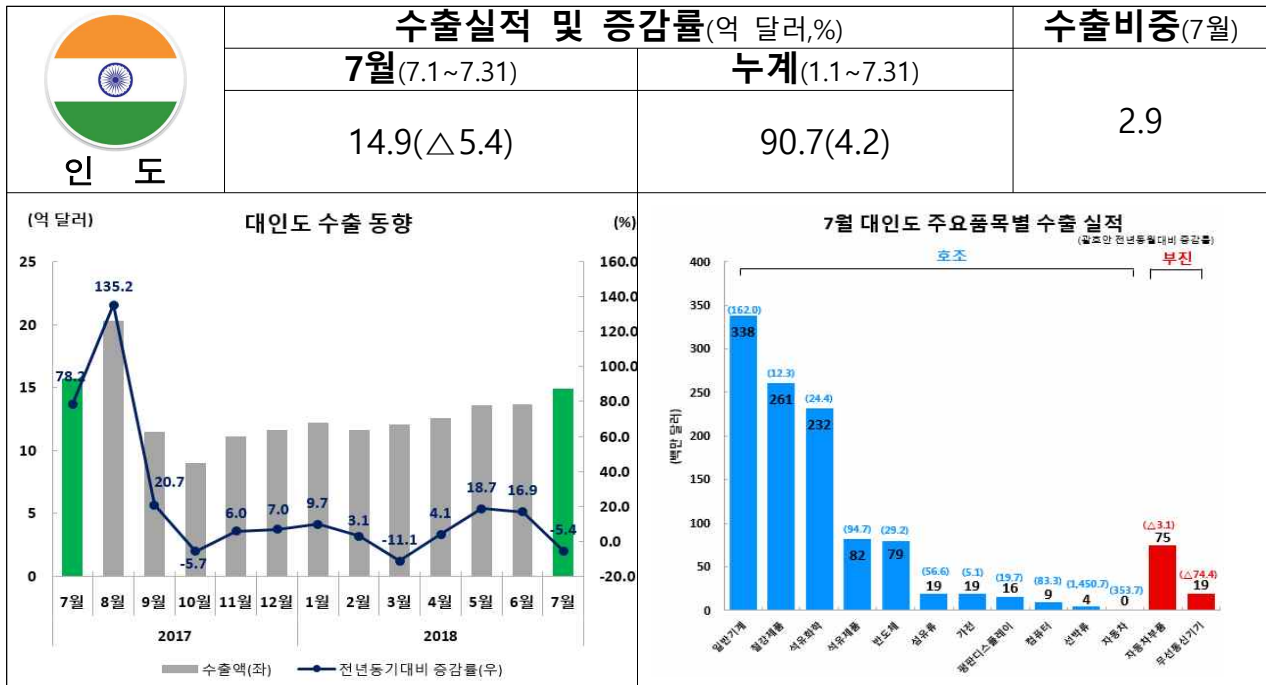
- 일반기계(1.5% ↓) : 일부 지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서일본 집중호우(7월 6일~7월 13일)로 인한 육상 교통 침수로 일부 기업 부품 조달 불가 및 공장 가동 중단
 . 일부 열차는 운행 중지로 육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함.
- * 마츠다(자동차), 다이하츠공업(자동차), 미쯔비시 중공업(교통시스템 장비 제작)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

□ (특이동향)

- 일본 정부, 일본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지속 추진
 - 일본·EU EPA 체결(7.17일 서명 완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8년 말 조기타결, TPP 11(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9년 발효 목표로 추진 등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FDI 유입, 소비·교역 호조 등에 힘입어 견고한 경제 성장세 지속되고 있는데, 7월 대인도 수출은 비중 높은 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 무선통신기기 현지 공장 증설 등으로 4개월 만에 감소(△5.4%)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차 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감소, 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반도체·섬유류 등 11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
- **무선통신기기(74.4%↓)** :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기본관세 인상 조치 등 수입규제, 스마트폰 및 부품 현지생산 확대에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인도정부의 현지 생산장려 정책(Make in India)에 따라 삼성전자, 샤오미, 홍차이 등 주요 핸드폰 메이커들이 인도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노이다 공장을 증설하면서 휴대폰 연 6,800만대의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연 1.2억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플래그쉽 모델인 S 시리즈 외에도 저가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홍차이 그룹 등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도 인도 내 생산을 확대하는 가운데, 늘어난 현지생산으로 인해 금년도 인도의 휴대폰 수입은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통신장비의 경우에는, 계약의 대부분이 달러를 기준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최근 루피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장비의 가격이 인상돼 인도 통신사들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인도통신기기협회(COAI))

- **일반기계(1620% ↑)** : 인도 정부의 제조업 진흥정책(Make in India)에 따른 외국 기업 투자진출 증가, 한국기업의 공장증설과 신규공장 설립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인도정부의 제조업 진흥책인 Make in India와 그로 인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나면서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 인도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 정책과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공장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기계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 기아자동차는 인도 중부 아난다푸르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기계류의 대인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현지에서는 기아자동차가 2019년 9월부터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 **철강제품(123% ↑)** : 산업생산 증가 및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른 철강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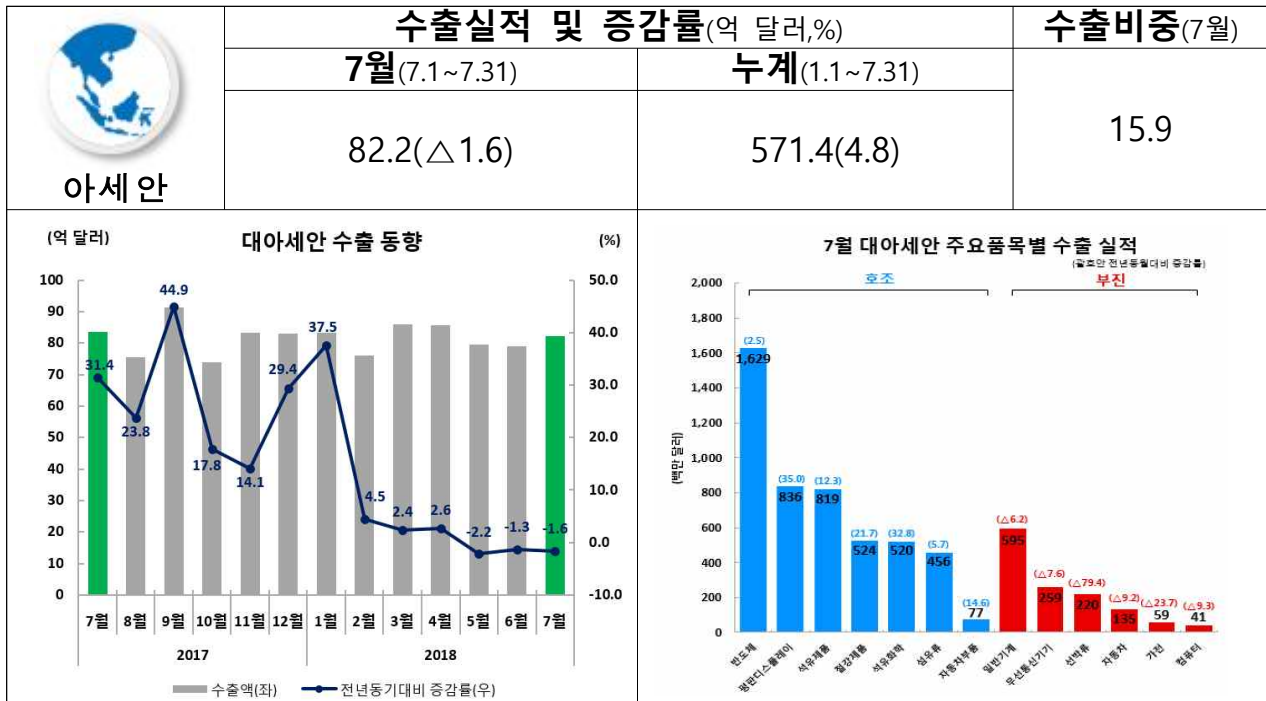
현장 정보

- * 인도 정부가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철강산업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조강 생산량은 102.338MT로 전년비 4.5% 증가했으며, 생산설비는 134.66MT로 5% 증가하였음.
 - . 철강 완제품의 수출은 9.62MT로 전년비 16.7% 증가한 가운데 수입 또한 7.482MT로 3.5% 증가하였음. 국내 소비량은 90.68MT로 7.9% 확대되었음.
 - . 인도 철강수입의 51%가 인도와 FTA를 체결한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 * 인도 내 철강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JSW Steel)

- **석유화학(24.4% ↑)** : PVC를 중심으로 화학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 지속 증가

현장 정보

-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PVC는 2016~20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되며, 농촌 인프라 정비, 도시화, 산업화 등의 배후수요가 풍부함
 - . PVC 레진을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며 PVC파이프, 전선피복, 생활 소비재 등에 적용되는 PVC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LG화학 인도지사)
- * 최근 루피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7월 장마(몬순) 시기를 앞두고 관개수로 정비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주 : 베트남 포함 실적

- **(7월 동향)** 주요국의 제조업 호조 및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7월 對아세안 수출은 전년 동월의 對인도네시아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1.6%) 기록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선박류 등의 수출 감소,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제품·철강 등은 수출 증가
- **선박류(79.4% ↓)** : 전년 동월의 對인도네시아 대규모 선박 수출의 기저효과, 신규 선박 수주 실적 부재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인도네시아)** 대형 선박 수출 실적 부재로 對인니 전체 수출 실적도 감소
 .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3.9억 달러 규모(전년대비 20,996% 증가) 군함 수출 실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對인니 전체 수출 실적도 10.6억 달러(73% 증가)를 기록하였음.
 이에 반해 금년 7월에는 신규 선박 수출 실적 전무하여 對인니 전체 수출 실적도 7억 달러(△34.1%)로 감소하였음.
- * **(말레이시아)** '18년 2월과 4월에는 각각 2억 달러 규모의 선박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나, 7월에는 선박류 수출 821천 달러로 전년대비 99.6% 감소

- **가전(23.7% ↓)** : 현지 소비수요 감소, 현지생산 확대, 중국·일본·대만과의 경쟁심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인도네시아 환율 불안정, 말레이시아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가의 가전제품 수입수요 감소
- *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 가전업체의 현지 생산 확대 및 내수 소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
- . 완제품의 경우 중국·태국·일본·대만산 제품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한국 가전제품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높아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도체(25% ↑)** : 현지 한국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부품 수요 및 현지 모바일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스마트폰 등 한국 기업의 현지 모바일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부품 수요 증가
- * **(필리핀)**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 수요도 증가세
- * **(말레이시아)** 메모리 시장 성장에 힘입어 모든 주요 시장이 전년 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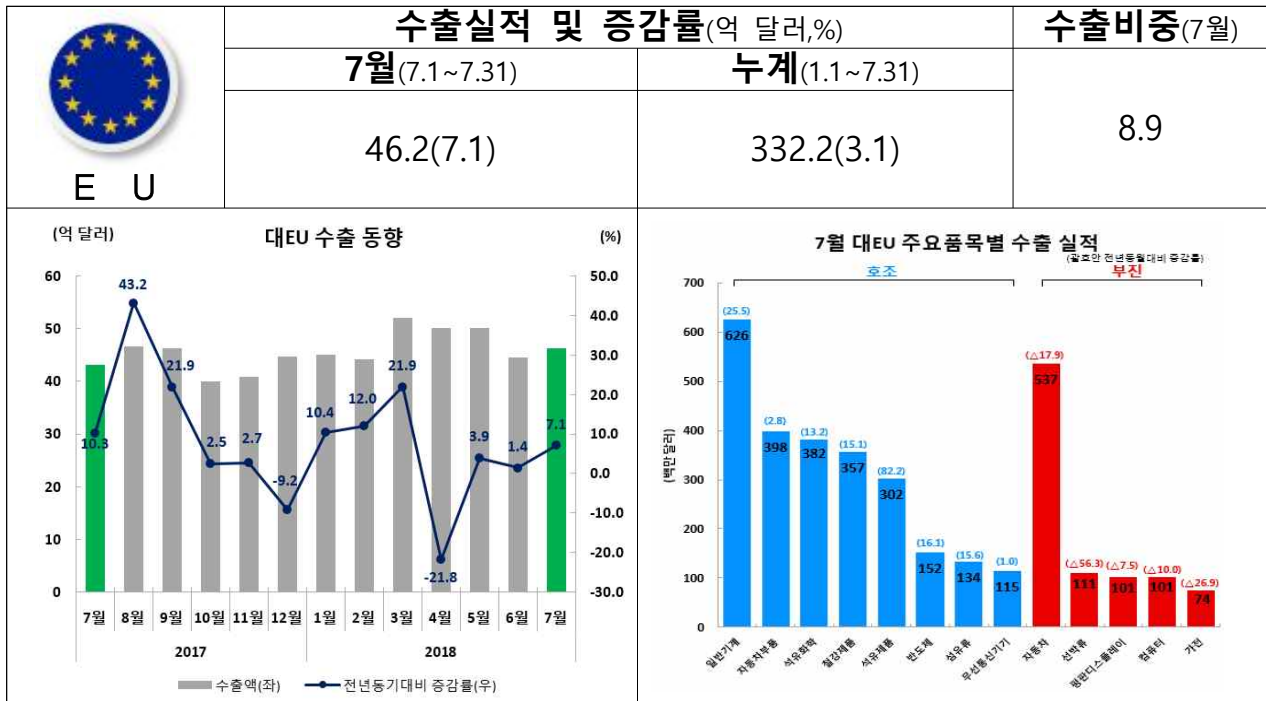
- **석유제품(12.3% ↑)**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현지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필리핀)** 경기호황에 따른 산업생산 및 소비 호조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요도 증가
- * **(말레이시아)** 일반 소비 및 산업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석유제품 수요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Marine & General Bhd)
- * **(싱가포르)**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증가로 수출 호조

□ (특이동향)

- 싱가포르, 멕시코·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CPTPP 비준(7.19)
 -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1개 참여국 중 6개 국가 비준 시, 60일 후 발효
- 말레이시아, 9월부터 '판매·서비스세(SST; Sales and Services Tax)' 재도입 예정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GST(Good and Services Tax, 6% 동률) 대신 9월 1일부터 판매세 10%, 서비스세 6% 부과, 신규 SST법안은 8월 의회 통과 예정
 - * (GST)생산→판매 과정 매단계마다 부과 및 환급 vs (SST)제조/수입/판매/서비스제공 등의 단계에서 1회 부과 및 면세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고용시장 안정, 내수 확대 및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안정적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 對EU 수출은 일반기계·자동차부품·석유화학·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7.1%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율 기록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자동차부품·석유화학·철강 등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자동차·선박류·평판디스플레이·컴퓨터·가전은 수출은 감소
- **일반기계(25.5% ↑)**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산업생산 활동 증가에 따른 기계 설비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헝가리)** 공장 및 제조시설, 주택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헝가리 내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신축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5%) 제도가 2019년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건설 관련 기계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용 기계 제조회사 Elsner Ipari és Szolgáltató)
- * **(스페인)** 스페인 내 산업생산 활동 증가로 섬유 및 화학기계, 인쇄기계 등에 대한 신규 구매 수요 증가 (일반기계 판매기업 A사)
- * **(루마니아)** 한국기업들의 루마니아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마케팅 활성화로 한국산 일반기계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음. (기계공구 판매기업 P사)

- **철강제품(15.1% ↑)** : 유로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 및 인프라 공사 등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독일)** 유로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이 철강제품 호조의 주요인이며, 독일 자동차 경기 호조로 경량화 철강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함. 다만, 7월 19일에 발효된 EU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및 니켈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전망 등은 하반기 對EU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뮌헨 무역관)
- * **(불가리아)** 인프라 공사와 주요 도시의 건설 공사 증가로 철강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 될 전망임. 글로벌 무역 분쟁, 환율 불안 등 철강제품 거래에 있어 리스크도 많지만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지속할 예정임. (철강판 바이어 A사)

- **석유제품(82.2% ↑)** : 유가 상승,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 및 한국산 제품의 품질경쟁력 확보 등으로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독일)** 나프타 등 국제 유가 상승, 독일 및 유럽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수출 호조 기록 (석유제품 판매법인 L사)
- * **(오스트리아)** EU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업계의 선제적인 투자로 환경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산 제품이 신흥국 제품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우수하여 한국산 제품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대글로벌비스 빈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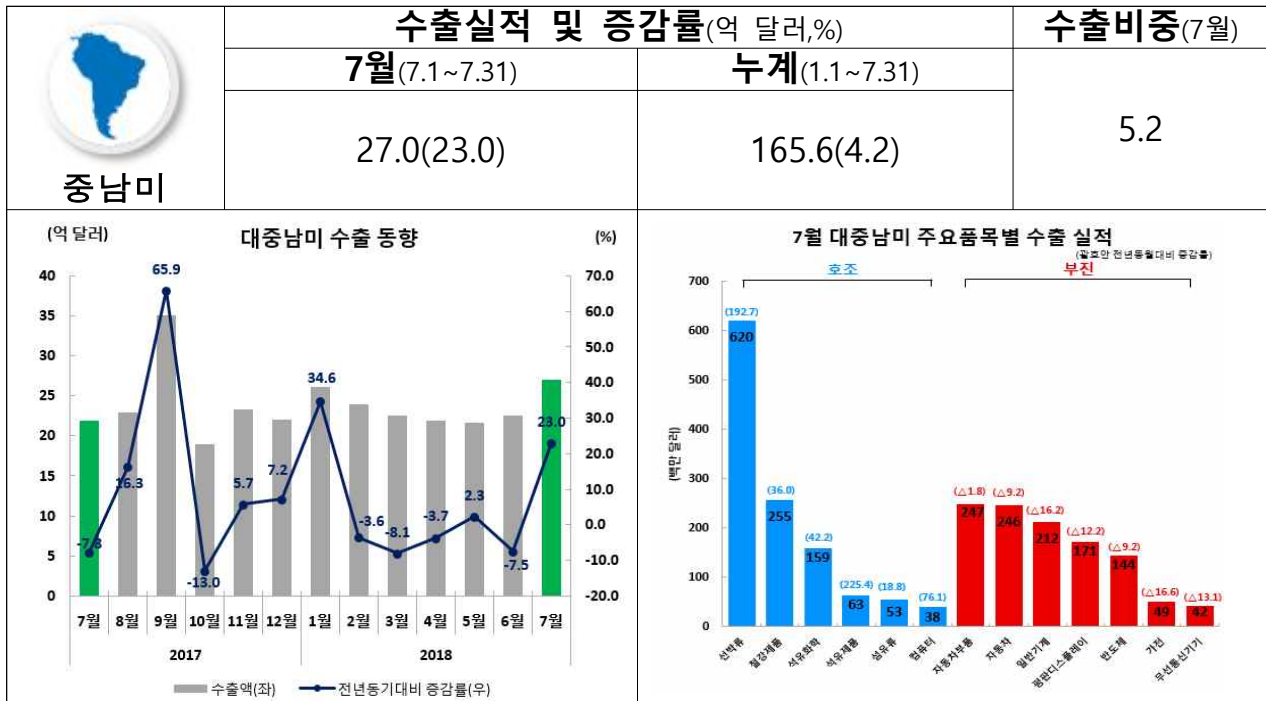
- **자동차(17.9% ↓)** : 유럽 현지생산 차종에 대한 수요 증가, 배기가스 관련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량 구매 지원 정책 등으로 직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체코)** 유럽(슬로바키아) 생산 차종에 대한 수요 증가로 '18.7월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수출 물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프라하 무역관)
- * **(헝가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배기가스 관련 환경규제 강화(EURO 6B→ 6C)에 대비, 본격적인 규제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물량을 준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동차 판매 물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부다페스트 무역관)
- * **(스웨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Bonus-malus 시스템으로 그동안 판매호조를 보였던 한국산 중형차량의 수입이 둔화되고 있음.
 . Bonus-malus 시스템 :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형차량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저탄소배출차량인 친환경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 (특이동향)

- EU, 9월부터 '모든 신규 차량'에 실 주행테스트(RDE; Real-Driving-Emission) 적용 예정 :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외 '미세먼지'에 대한 테스트도 포함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주요국의 고용환경 개선 및 소비심리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파업(브라질), 환율 변동성, NAFTA 재협상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7월 對중남미 수출은 대형 선박 수출 및 철강·석유화학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리 증가율(23.0%)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선박류·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 등 6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 자동차부품·자동차·일반기계·평판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은 수출 감소

- **선박류(192.7% ↑)** :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16.6월) 등에 따른 편의치적 선박 인도 증가 및 고가의 LNG 선박 2척 통관 등에 따라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파나마)**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 이후 파나마 운하 통과 선박 확대로 對파나마 선박 수출 확대 추세 지속
 - 한국 선박회사의 항비 절감 및 운항 상 융통성 확보 목적으로 파나마 편의국적선 취득 선박 증가 추세
 - 2017 회계연도(2016.10.1.-2017.9.30.) 통계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의 연간 물동량이 전년대비 22.2% 증가한 4.04억 톤을 기록하며 기존 2015년도 기록인 3.3억 톤을 경신하였고, 통항 선박 수 및 통항료 수입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파나마 운하청)

- **철강제품(36.0% ↑)** : 주요국의 제조업 및 건설업 경기 호조, 멕시코의 수입 쿼터 확대에 따른 철강재 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멕시코)**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의 성장으로 철강제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냉연강판 수입쿼터가 전년대비 각각 45,000톤, 545,000톤 증가하여 한국산 철강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 **(브라질)** 철강제품 국내 생산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수입품은 전체 철강제품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철강산업협회 Aço Brasil)
- * **(아르헨티나)** 건설업 경기 호조로 철강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으로, 철강제품의 수요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석유화학제품(42.2% ↑)** :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경기 호조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멕시코)** 멕시코 내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이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증가를 견인함.
- * **(콜롬비아)**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증가
- * **(페루)** 의약/광택제/페인트 등에 대한 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음료용기 등에 사용할 플라스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광업 경기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페루 산업경제사회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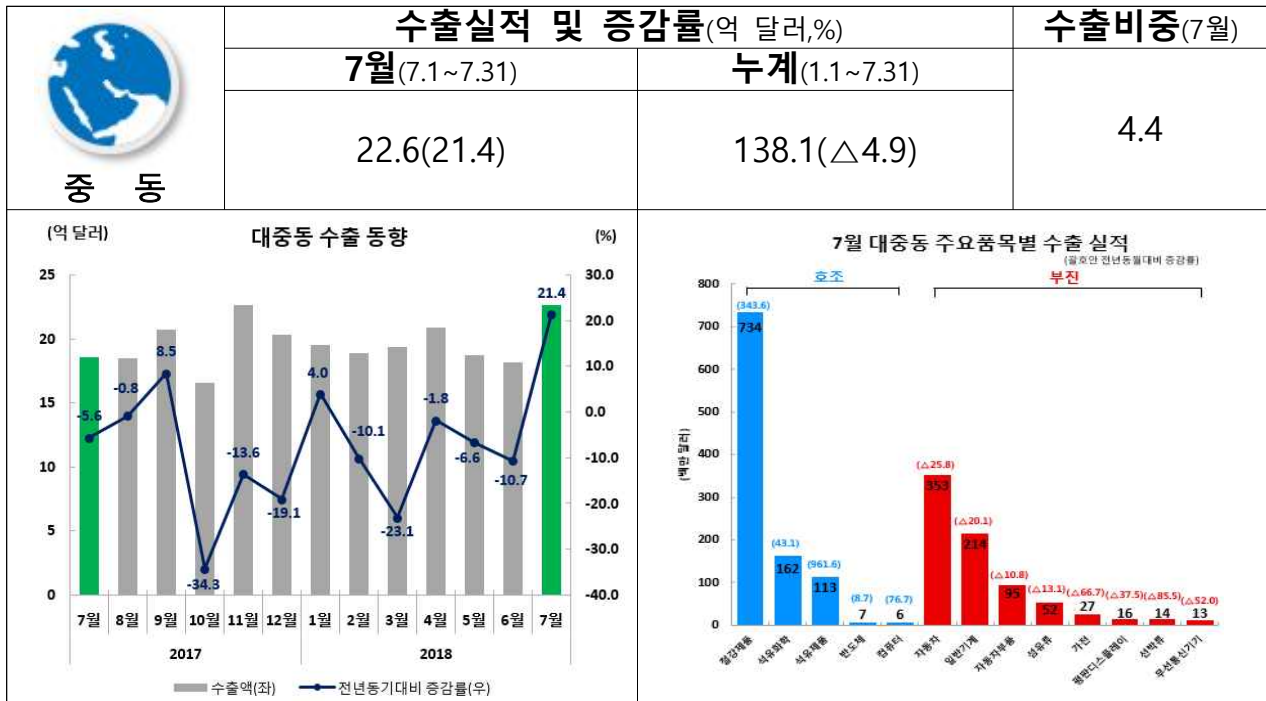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1.8% ↓)** : 현지 생산·조달 비중 증가 및 주요국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멕시코)** 자동차 생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아자동차와 동반 진출한 한국 협력업체들의 부품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對멕시코 자동차부품 수출은 감소 .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수입품보다는 멕시코에서 양산 중인 부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
- * **(아르헨티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아르헨티나 페소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동차부품 수입 수요도 감소

□ (특이동향)

- 한국,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신청(7.23)
 - * 7.23(24일)간 멕시코에서 개최된 PA(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중남미 4개국 지역 경제동맹) 정상회의에서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 가입 시에는 멕시코와도 FTA를 체결한 효과 기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주요국의 환율 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돼 소비·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7월 對중동 수출은 對UAE 철구조물 수출 증가 및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두 자리 수 증가율(21.4%)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일반기계·자동차부품·섬유류 등 8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 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반도체·컴퓨터는 수출 증가

○ **철강(343.6% ↑)** : 대규모 해양 철구조물 수출, 조선업계 수주량 증가에 따른 선박용 후판 수요 증가, 수출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UAE)**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 대비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철강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선업계 수주량 증가로 선박용 후판 수요 증가 및 철강제품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수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 **(이집트)**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내수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350만 톤의 철강제품을 수입할 것으로 보임. (BMI)

- 석유화학제품(43.1% ↑) : 도로 및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사우디) 플랜트 생산능력 증가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지속 확대
- * (이집트) 석유화학산업은 이집트 전체 GDP의 3%를 차지하고, 공업 생산량 중의 12%를 차지함. 이집트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석유화학 제품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시행 중임.

- 석유제품(961.6% ↑) : 전년도 미미한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UAE) 상반기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제품 수출 단가 상승으로 휘발유 수출 급증
 . 두바이유가 추이 (\$/b) : 46.5('17.7월) → 73.04(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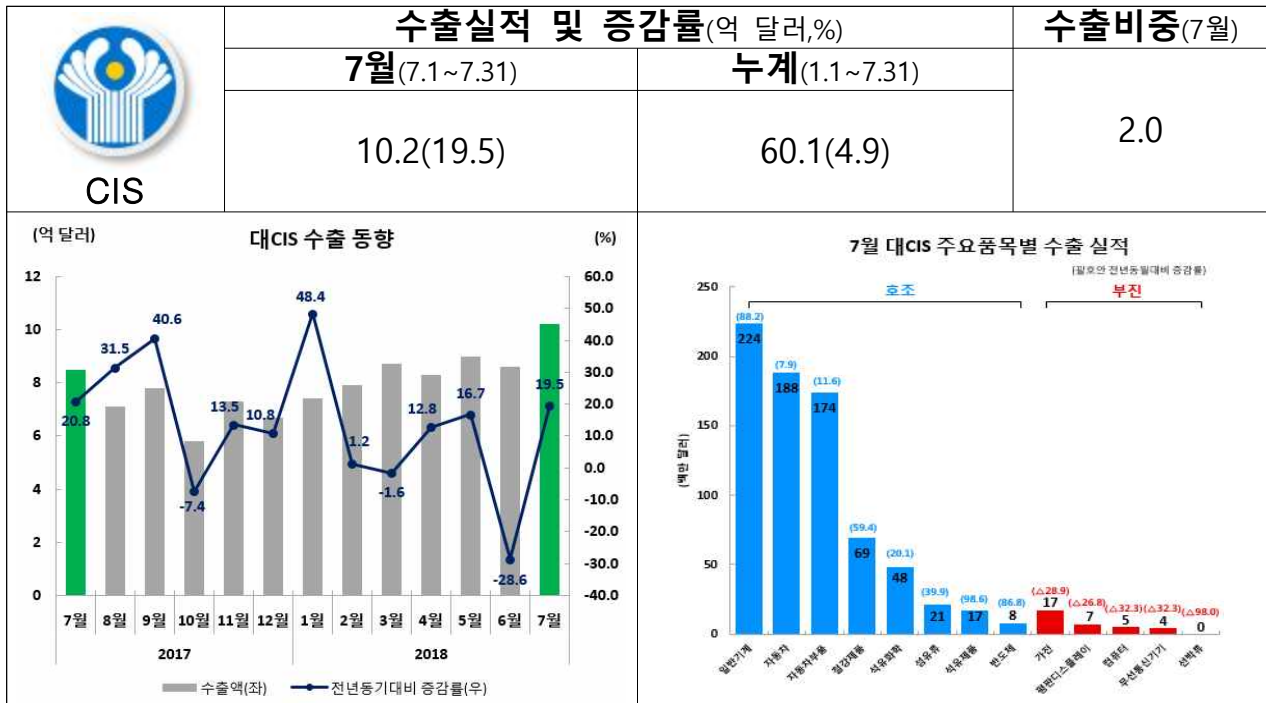
- 자동차(25.8% ↓) : 사우디의 외국인 이탈로 인한 승용차 구매 수요 급감 및 라마단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UAE) 라마단 프로모션 종료로 인한 단기적 Sell-out 부진
- * (사우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 정책들(외국인 근로자 가족부양세 등)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탈하며 승용차 구매 수요도 급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18년 상반기에만 약 50만 명의 외국인이 사우디를 떠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특이동향)

- 이집트, 7월 1일부터 FY 2018/19 예산안 집행
 - 경제성장률 5.8% 달성, 물가상승률 10% 달성 목표
 -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GDP의 8.4%까지) 및 공공부채(GDP의 91~92%로) 감소 추진
 - 1,480억 이집트파운드의 정부투자 예산을 대형 국책사업(신행정수도, 도로 인프라 구축, 수산 및 농업 프로젝트 등) 수행에 사용할 예정
 - * 건설장비·중장비 관련 수출기업 및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의 지속적 관심 필요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7월 동향)** 러시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주요국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 對CIS 수출은 비중이 높은 일반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호조로 두 자리 수 증가율(19.5%)을 기록하며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일반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섬유류 등의 수출은 증가, 가전·평판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 감소

- 일반기계(88.2% ↑) : 산업생산 호조(러시아), 발전소 프로젝트(우즈베키스탄),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러시아)** 러시아 경제 호조로 산업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기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짐. 1분기 산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2.8%, 2분기는 3.2% 증가함. (러시아 통계청)
- * **(카자흐스탄)** 대부분의 기계는 러시아나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충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Alageum Electric LLP)
- * **(우즈베키스탄)** 타히아타쉬 발전소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공기조절기(열교환기), 난방기 및 부품, 펌프 등 기계 수입 증가 (한국 H사)

- **자동차(7.9% ↑)** : 신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정책(러시아, 카자흐스탄), 수입 자동차 관세 한시적 인하(우크라이나)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러시아)** '생애 첫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등으로 한국산 신차 판매, 특히 상용차 판매 증가
 . 2018년 1~6월 러시아 시장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 판매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AEB)
- * **(카자흐스탄)** 하계휴가 시즌인 6~8월에 자동차 구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차 구입 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정책이 시작되면서 판매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 **(우크라이나)** 연초 저조했던 한국산 신차 판매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수입자동차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춘 정책으로 인해 중고차 수입 확대 추세 (Korea Cars)
- * **(우즈베키스탄)** GM우즈베키스탄의 DKD 차량 생산 증가, '18.3월부터 환경부 청소차 납품으로 한국산 화물차 수출 대폭 증가

- **자동차부품(11.6% ↑)** : 주요국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인해 DKD 부품 수요도 확대돼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러시아)** 2018년 6월 러시아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139,00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한 것임. 자동차 생산 증가로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러시아 통계청)
- * **(우즈베키스탄)** 2018년 차량 생산 목표량은 20만대이나 상반기까지 생산된 차량은 78,000여대로 전년 동기 66,000여대에 비해 약 18%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증가함. (자동차공업성 Uzauto)

- **가전(28.9% ↓)** : 여름 휴가철 수요 감소, 근거리 유럽산 제품 선호, 저가 중국산 제품 강세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러시아)** 가계 소득 감소, 저렴한 중국산 제품 강세 등의 요인으로 한국 기업의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됨. 아울러, 7월에는 러시아의 많은 가정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계절적 특성상 가전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임.
 . 2018년 6월 누계기준, 러시아 내 냉장고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 세탁기는 0.8% 감소, 가스레인은 11.9% 감소 (러시아 통계청)
- * **(우크라이나)** 한국산의 경우 직수입이 아닌 밀무역 등이 성행하고, 여전히 유럽산 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키예프 무역관)

□ (특이동향)

- 우즈베키스탄, 주변국과의 관세·세금 조화 및 자국 생산 활성화를 위해 '19.1.1일부터 74개류 447개 품목의 관세, 10개류 68개 품목의 소비세 변경 예정
- 대통령 결의안 PP-3818(6.29일 채택)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세·소비세 인하되나, 자동차(HS 87류) 품목 대부분은 관세 및 소비세 인상 예정
- * 단, 100% 전기자동차 및 생산된 지 2년 미만, 4만 달러 이상 차량 수입 시 관세 면제

참고 1

지역별 · 월별 수출 실적 [7.1~7.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	'17년 전체	'17년						'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국	142,120	10,791	11,912	13,541	12,580	14,001	13,848	13,383	11,521	13,582	13,043	13,854	13,819	13,733
	(14.2)	(6.5)	(15.6)	(23.6)	(13.5)	(20.4)	(14.9)	(24.4)	(3.6)	(16.5)	(23.2)	(30.1)	(29.4)	(27.3)
미국	68,611	5,661	5,953	6,598	4,727	6,382	5,296	5,160	4,683	6,079	5,945	6,158	6,426	6,158
	(3.2)	(7.0)	(23.5)	(28.6)	(△12.5)	(11.5)	(△7.8)	(4.4)	(△11.9)	(△2.0)	(△1.5)	(11.5)	(7.4)	(8.8)
베트남	47,753	3,637	3,755	4,734	3,865	4,412	4,059	4,277	3,628	4,197	3,725	3,781	3,937	3,917
	(46.3)	(29.1)	(36.5)	(69.3)	(33.9)	(46.3)	(27.2)	(53.2)	(14.0)	(△3.1)	(△17.5)	(△9.0)	(△8.8)	(7.7)
일본	26,816	2,162	2,107	2,516	1,848	2,520	2,450	2,584	2,446	2,607	2,483	2,516	2,591	2,541
	(10.1)	(4.6)	(4.8)	(16.1)	(△12.1)	(10.8)	(10.2)	(21.3)	(19.6)	(8.8)	(17.8)	(15.3)	(10.2)	(17.5)
인도	15,056	1,570	2,034	1,152	899	1,109	1,161	1,221	1,162	1,212	1,260	1,364	1,368	1,485
	(29.8)	(78.2)	(135.2)	(20.7)	(△5.7)	(6.0)	(7.0)	(9.7)	(3.1)	(△11.1)	(4.1)	(18.7)	(16.9)	(△5.4)
아세안	95,250	8,351	7,539	9,119	7,399	8,327	8,314	8,338	7,593	8,587	8,559	7,943	7,908	8,215
	(27.8)	(31.4)	(23.8)	(44.9)	(17.8)	(14.1)	(29.4)	(37.5)	(4.5)	(2.4)	(2.6)	(△2.2)	(△1.3)	(△1.6)
EU	54,037	4,311	4,657	4,618	3,989	4,078	4,469	4,496	4,406	5,204	5,024	5,010	4,459	4,616
	(15.9)	(10.3)	(43.2)	(21.9)	(2.5)	(2.7)	(△9.2)	(10.4)	(12.0)	(21.9)	(△21.8)	(3.9)	(1.4)	(7.1)
중남미	11,597	2,194	2,290	3,510	1,886	2,326	2,200	2,612	2,393	2,257	2,190	2,160	2,246	2,699
	(3.0)	(△7.8)	(16.3)	(65.9)	(△13.0)	(5.7)	(7.2)	(34.6)	(△3.6)	(△8.1)	(△3.7)	(2.3)	(△7.5)	(23.0)
중동	9,968	1,862	1,845	2,070	1,660	2,260	2,026	1,948	1,885	1,936	2,092	1,869	1,819	2,260
	(△6.1)	(△5.6)	(△0.8)	(8.5)	(△34.3)	(△13.6)	(△19.1)	(4.0)	(△10.1)	(△23.1)	(△1.8)	(△6.6)	(△10.7)	(21.4)
CIS	9,209	851	710	783	578	731	672	739	794	870	834	897	864	1,016
	(33.7)	(20.8)	(31.5)	(40.6)	(△7.4)	(13.5)	(10.8)	(48.4)	(1.2)	(△1.6)	(12.8)	(16.7)	(△28.6)	(19.5)
월별 총수출	573,694	48,830	47,106	55,115	44,791	49,707	49,040	49,229	44,529	51,328	49,866	50,708	51,129	51,852
	(15.8)	(19.4)	(17.4)	(34.9)	(6.7)	(9.7)	(8.8)	(22.3)	(3.2)	(5.5)	(△1.9)	(12.9)	(△0.3)	(6.2)

참고2

'18.7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실적 (7.1~7.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국가명	품목명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석유 제품	철강 제품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 기기	섬유류	컴퓨터	자동차	선박류	기전
중 국	당월 (증감률)	4,388 (34.3)	1,031 (17.3)	1,755 (14.7)	749 (108.4)	387 (28.7)	1,026 (△10.5)	256 (35.6)	349 (△11.5)	164 (0.1)	229 (△1.4)	2 (△64.4)	20 (△61.4)	46 (△11.0)
	누계 (증감률)	29,954 (53.8)	7,545 (23.0)	12,347 (7.6)	5,453 (68.0)	2,526 (0.6)	6,880 (△24.2)	1,775 (△7.2)	2,433 (△18.7)	1,131 (0.3)	1,907 (39.5)	16 (△56.5)	232 (△58.7)	311 (△23.4)
미 국	당월 (증감률)	462 (71.4)	843 (37.7)	256 (64.1)	189 (△26.7)	256 (△31.9)	9 (△7.9)	543 (10.2)	564 (35.6)	123 (10.5)	192 (△17.3)	1,135 (△13.1)	4 (76.1)	189 (4.4)
	누계 (증감률)	2,659 (49.5)	5,089 (19.1)	1,558 (30.5)	1,828 (1.4)	1,974 (△11.6)	64 (△4.8)	3,460 (△2.8)	3,529 (10.7)	812 (8.7)	1,615 (31.4)	7,449 (△18.3)	68 (47.0)	1,178 (△12.6)
베트남	당월 (증감률)	730 (△4.1)	289 (△10.0)	179 (23.9)	138 (△15.8)	158 (14.0)	812 (41.5)	39 (13.4)	227 (△13.0)	278 (8.3)	11 (△30.2)	52 (△12.5)	1 (△78.7)	32 (△19.4)
	누계 (증감률)	6,307 (22.0)	2,228 (△30.5)	1,199 (14.4)	1,668 (47.7)	1,031 (13.3)	4,044 (23.0)	255 (9.0)	1,585 (△18.3)	1,854 (7.7)	58 (△66.7)	452 (△14.4)	35 (35.4)	216 (△29.5)
일 본	당월 (증감률)	110 (33.9)	270 (△1.5)	202 (66.9)	340 (69.1)	357 (9.4)	8 (50.8)	80 (1.0)	42 (36.3)	64 (3.7)	55 (90.1)	5 (31.1)	13 (11.0)	51 (15.2)
	누계 (증감률)	747 (10.2)	1,814 (6.8)	1,315 (37.8)	2,668 (64.9)	2,421 (6.5)	54 (△10.0)	549 (0.6)	370 (8.2)	482 (6.7)	204 (5.1)	18 (△13.9)	73 (△63.1)	383 (17.9)
인 도	당월 (증감률)	79 (29.2)	338 (162.0)	232 (24.4)	82 (94.7)	261 (12.3)	16 (19.7)	75 (△3.1)	19 (△74.4)	19 (56.6)	9 (83.3)	0 (353.7)	4 (1,450.7)	19 (5.1)
	누계 (증감률)	658 (71.1)	1,377 (45.1)	1,632 (24.4)	405 (39.6)	1,619 (27.6)	70 (21.2)	570 (4.2)	218 (△83.2)	125 (32.2)	50 (29.7)	3 (93.0)	10 (290.7)	100 (△22.2)
아세안	당월 (증감률)	1,629 (2.5)	595 (△6.2)	520 (32.8)	819 (12.3)	524 (21.7)	836 (35.0)	77 (14.6)	259 (△7.6)	456 (5.7)	41 (△9.3)	135 (△9.2)	220 (△79.4)	59 (△23.7)
	누계 (증감률)	12,405 (24.6)	4,302 (△16.8)	3,405 (11.2)	6,770 (31.9)	3,416 (△14.2)	4,207 (20.2)	488 (5.7)	1,776 (△16.6)	3,078 (4.6)	233 (△22.8)	1,023 (△10.0)	1,850 (△11.8)	418 (△29.8)
EU	당월 (증감률)	152 (16.1)	626 (25.5)	382 (13.2)	302 (82.2)	357 (15.1)	101 (△7.5)	398 (2.8)	115 (1.0)	134 (15.6)	101 (△10.0)	537 (△17.9)	111 (△56.3)	74 (△26.9)
	누계 (증감률)	1,148 (19.8)	4,202 (23.7)	2,639 (20.4)	584 (△33.6)	2,548 (27.9)	673 (△3.2)	2,564 (1.6)	735 (△24.7)	893 (11.5)	758 (16.0)	4,940 (16.3)	2,653 (△54.2)	535 (△25.9)
중남미	당월 (증감률)	144 (△9.2)	212 (△16.2)	159 (42.2)	63 (225.4)	255 (36.0)	171 (△12.2)	247 (△1.8)	42 (△13.1)	53 (18.8)	38 (76.1)	246 (△9.2)	620 (192.7)	49 (△16.6)
	누계 (증감률)	1,120 (30.7)	1,609 (△2.7)	968 (21.7)	330 (467.6)	1,498 (16.5)	823 (△28.8)	1,664 (△4.6)	305 (△46.9)	338 (5.1)	307 (11.7)	1,841 (△17.3)	2,744 (32.3)	337 (△19.6)
중 동	당월 (증감률)	7 (8.7)	214 (△20.1)	162 (43.1)	113 (961.6)	734 (343.6)	16 (△37.5)	95 (△10.8)	13 (△52.0)	52 (△13.1)	6 (76.7)	353 (△25.8)	14 (△85.5)	27 (△66.7)
	누계 (증감률)	46 (12.9)	1,659 (△15.1)	1,036 (7.0)	481 (54.2)	1,915 (48.7)	185 (△26.4)	885 (3.6)	159 (△35.0)	346 (△15.8)	74 (10.4)	2,773 (△14.1)	413 (△18.6)	424 (△30.8)
CIS	당월 (증감률)	8 (86.8)	224 (88.2)	48 (20.1)	17 (98.6)	69 (59.4)	7 (△26.8)	174 (11.6)	4 (△32.3)	21 (39.9)	5 (△32.3)	188 (7.9)	0 (△98.0)	17 (△28.9)
	누계 (증감률)	42 (55.8)	968 (25.9)	321 (27.4)	64 (34.1)	365 (△24.1)	38 (△12.2)	1,067 (2.2)	39 (△36.9)	127 (14.7)	45 (△32.4)	1,471 (38.3)	5 (△99.0)	101 (△19.6)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10,384 (31.6)	4,713 (18.4)	4,283 (24.1)	3,938 (44.6)	3,502 (34.0)	2,252 (2.4)	2,024 (7.2)	1,530 (4.0)	1,226 (6.5)	882 (9.9)	3,146 (△13.7)	1,622 (△73.4)	598 (△15.9)
	누계 (증감률)	71,650 (41.1)	30,987 (10.0)	29,245 (14.7)	25,944 (35.7)	20,298 (4.2)	13,383 (△13.1)	13,628 (△1.2)	10,263 (△17.7)	8,404 (5.2)	6,556 (33.7)	23,428 (△6.8)	12,436 (△58.6)	4,290 (△18.1)

참고3

'18.7월 지역별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 [7.1~7.31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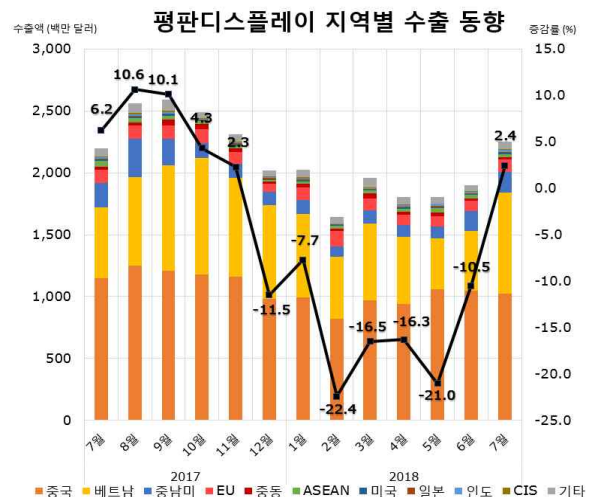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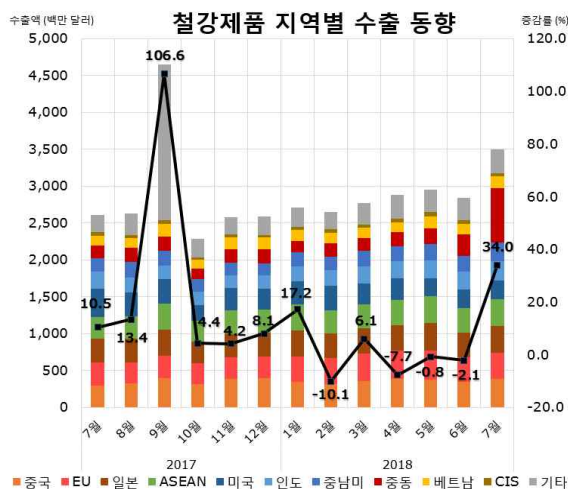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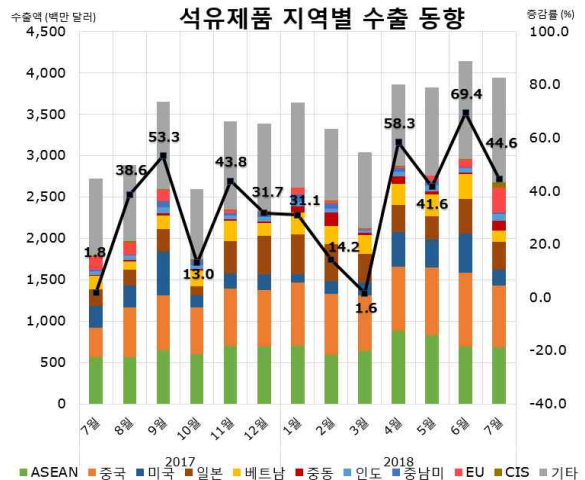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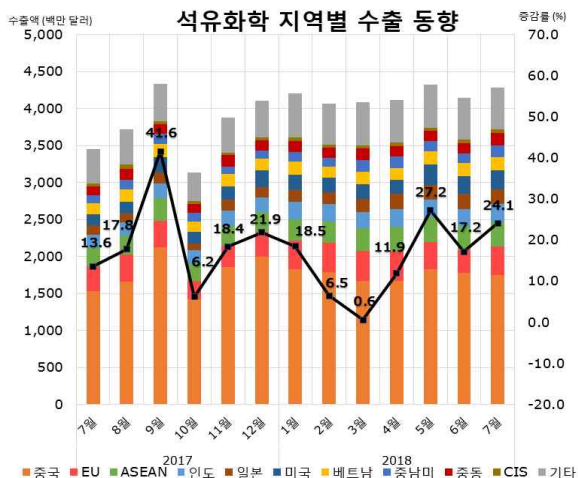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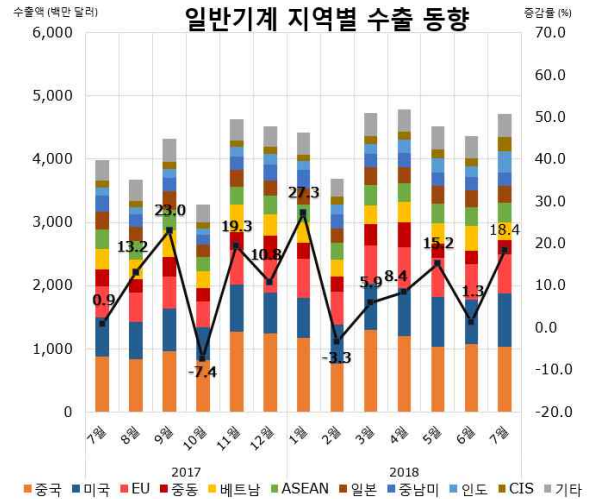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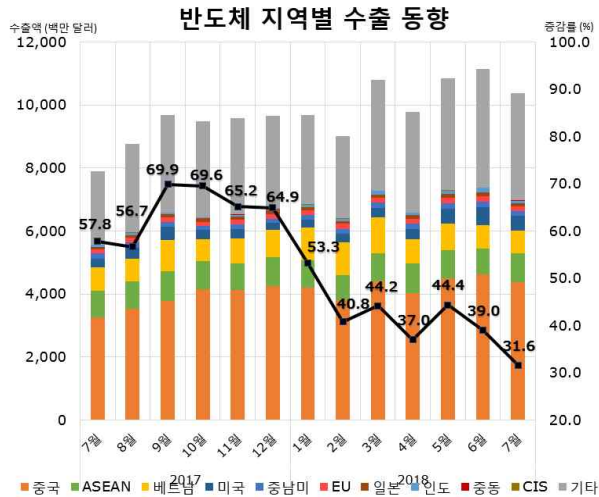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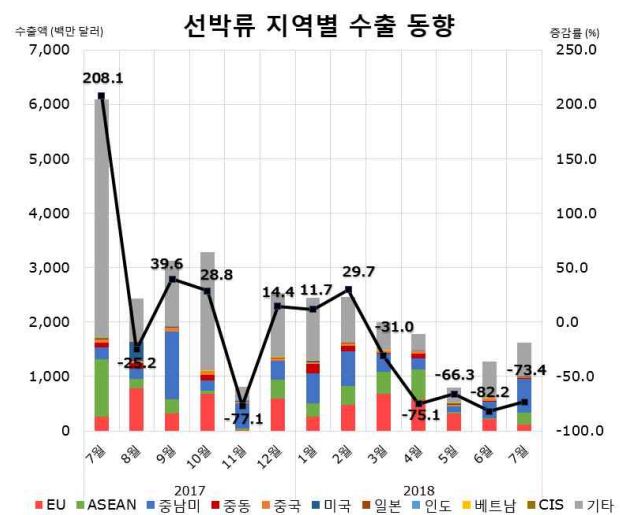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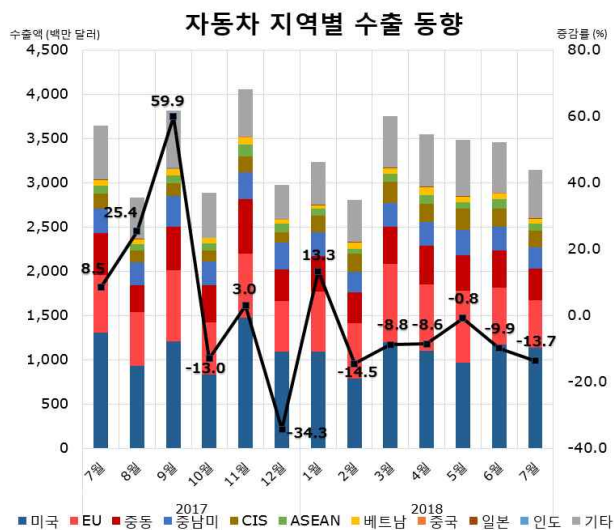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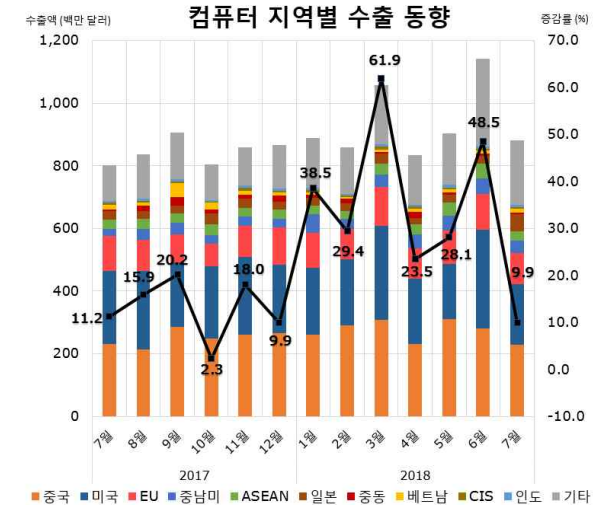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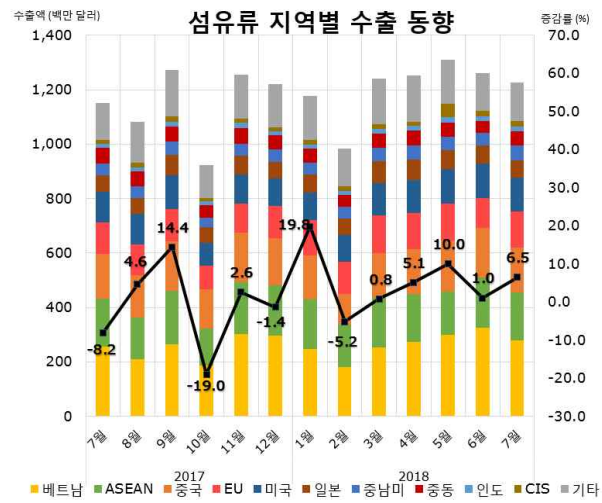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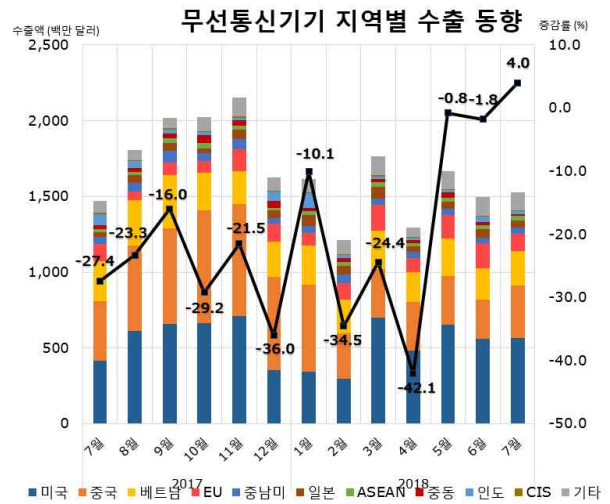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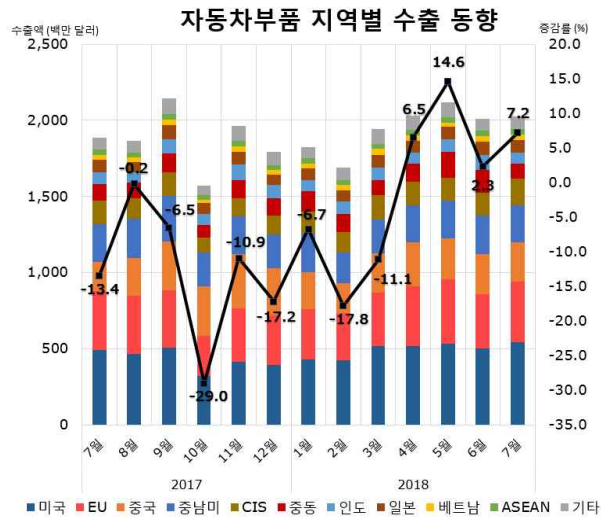
지역명	품목명	유망소비재 품목					고부가가치 품목			의료기기
		농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OLED	SSD	MCP	
중 국	당월 (증감률)	118 (27.4)	211 (56.4)	17 (3.2)	103 (18.1)	46 (25.3)	283 (18.1)	112 (△30.4)	426 (△15.9)	38 (34.2)
	누계 (증감률)	730 (17.1)	1,543 (62.3)	148 (31.7)	670 (△5.7)	279 (7.2)	1,837 (△14.5)	1,033 (17.0)	4,147 (52.2)	274 (19.7)
미 국	당월 (증감률)	74 (13.9)	59 (49.8)	9 (△44.0)	100 (8.0)	33 (△1.2)	1 (75.2)	122 (△24.6)	4 (203.7)	48 (33.8)
	누계 (증감률)	532 (3.7)	306 (13.3)	158 (△25.0)	681 (6.7)	190 (5.8)	5 (21.8)	1,112 (31.5)	25 (△70.1)	333 (13.3)
베트남	당월 (증감률)	45 (34.4)	14 (48.5)	12 (△7.4)	40 (12.1)	61 (12.7)	598 (91.1)	0 (△89.8)	81 (△40.7)	8 (△3.5)
	누계 (증감률)	295 (23.7)	93 (44.6)	77 (△12.7)	274 (15.5)	388 (13.4)	2,576 (39.2)	2 (△61.5)	1,357 (45.6)	43 (△13.9)
일 본	당월 (증감률)	181 (△1.3)	26 (28.8)	27 (5.6)	63 (△0.5)	33 (0.4)	5 (74.4)	16 (31.7)	22 (127.2)	15 (10.1)
	누계 (증감률)	1,207 (4.3)	173 (35.5)	157 (△0.4)	429 (△1.3)	242 (0.1)	33 (66.1)	73 (36.1)	143 (39.1)	116 (6.0)
인 도	당월 (증감률)	2 (5.4)	1 (21.0)	6 (91.7)	18 (△96.1)	0 (71.2)	3 (61.4)	0 (71.5)	11 (△45.1)	9 (23.8)
	누계 (증감률)	10 (15.1)	7 (77.1)	23 (△1.8)	103 (△81.3)	1 (7.3)	8 (88.0)	4 (234.1)	258 (133.4)	62 (2.4)
아세안	당월 (증감률)	127 (2.5)	59 (44.2)	35 (32.8)	87 (17.2)	80 (4.5)	606 (80.3)	6 (△55.4)	92 (△39.4)	27 (△2.8)
	누계 (증감률)	961 (13.5)	387 (34.0)	204 (8.7)	602 (10.7)	547 (6.6)	2,639 (38.5)	71 (△8.1)	1,457 (49.1)	184 (1.8)
EU	당월 (증감률)	31 (△3.6)	19 (69.8)	134 (82.4)	66 (21.5)	19 (20.6)	31 (△6.4)	56 (△19.7)	10 (△3.0)	43 (△1.9)
	누계 (증감률)	232 (6.3)	121 (45.5)	761 (82.8)	432 (16.8)	111 (14.8)	233 (△3.2)	488 (22.0)	72 (△13.3)	335 (15.4)
중남미	당월 (증감률)	12 (24.3)	2 (54.2)	13 (△27.4)	35 (6.6)	1 (△6.4)	13 (△68.3)	30 (84.1)	30 (△10.1)	13 (13.6)
	누계 (증감률)	85 (20.5)	12 (84.5)	157 (△1.7)	201 (△4.1)	11 (3.0)	85 (△61.6)	251 (12.5)	223 (74.1)	88 (3.8)
중 동	당월 (증감률)	17 (△66.1)	3 (△35.3)	16 (151.5)	23 (5.6)	2 (△48.1)	0 (△30.0)	1 (167.3)	2 (87.8)	20 (17.0)
	누계 (증감률)	234 (△33.7)	24 (17.2)	79 (43.0)	163 (△14.3)	15 (△31.2)	4 (△54.3)	7 (455.5)	11 (151.3)	135 (2.2)
CIS	당월 (증감률)	20 (△10.5)	15 (58.7)	5 (-)	30 (22.0)	2 (16.6)	0 (35.7)	2 (42.1)	2 (42.6)	16 (37.8)
	누계 (증감률)	134 (9.8)	112 (75.0)	29 (16.7)	173 (16.7)	7 (△22.4)	3 (149.1)	19 (52.4)	10 (74.9)	108 (46.6)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685 (1.3)	510 (40.9)	303 (35.8)	595 (△39.3)	234 (7.0)	948 (43.8)	495 (△4.0)	1,342 (△19.9)	252 (16.9)
	누계 (증감률)	4,880 (6.0)	3,696 (40.1)	2,062 (39.0)	3,971 (△5.7)	1,518 (5.0)	4,875 (6.6)	3,985 (39.4)	14,257 (36.4)	1,804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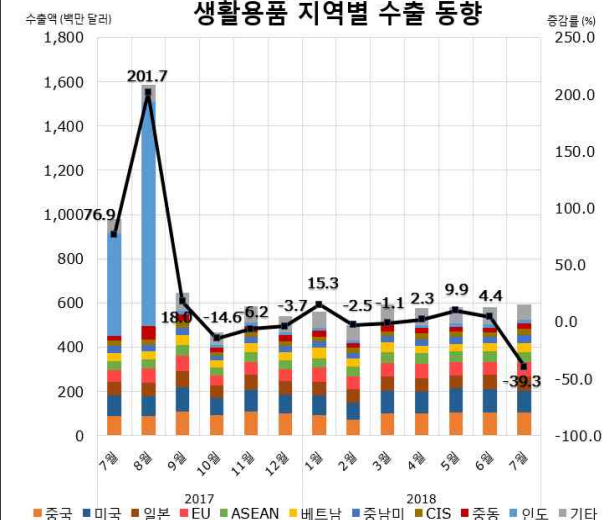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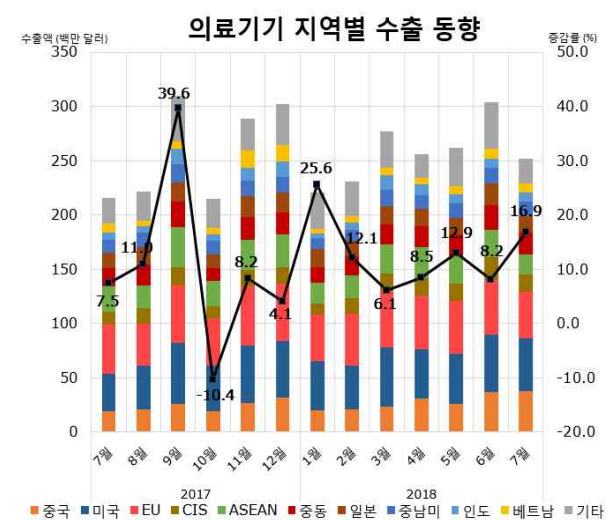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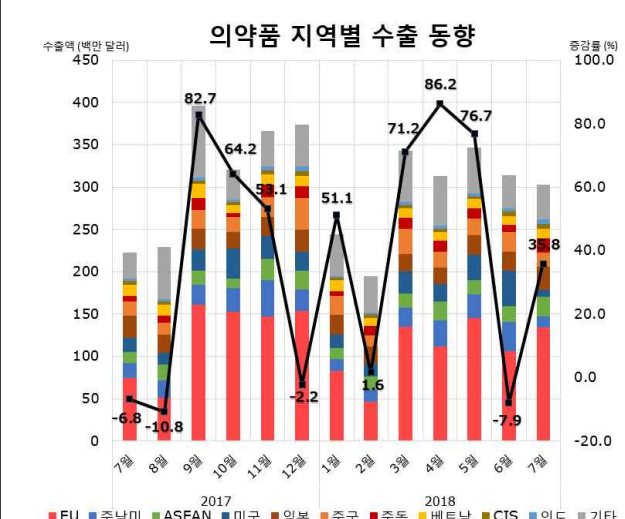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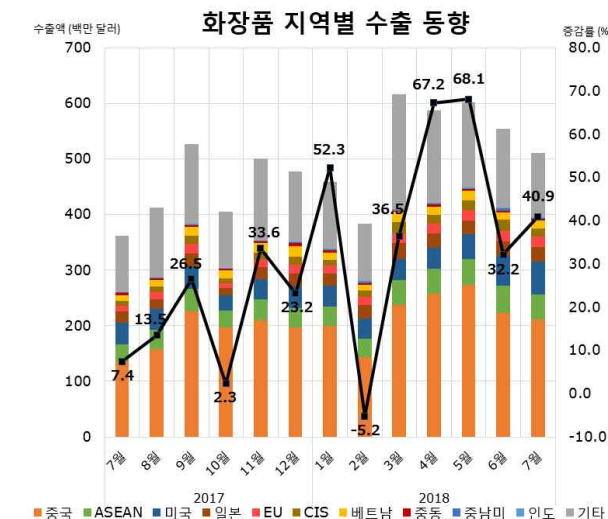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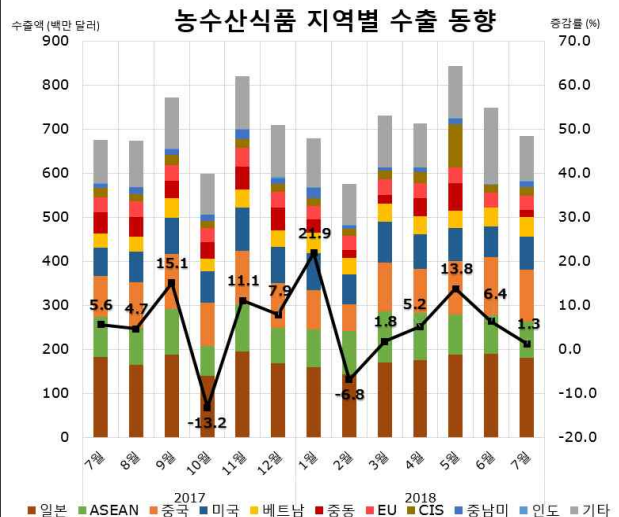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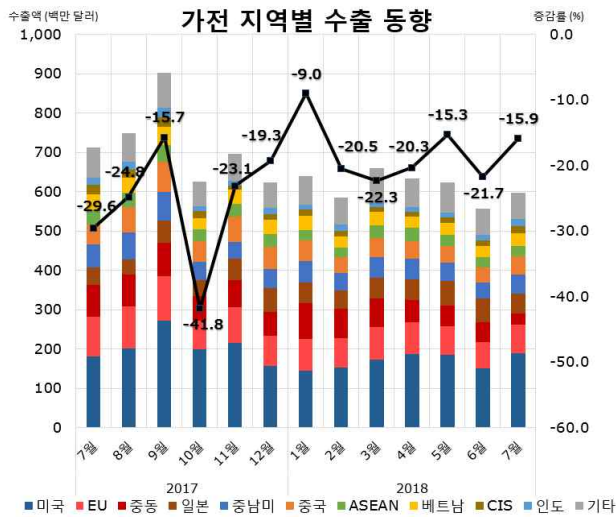
참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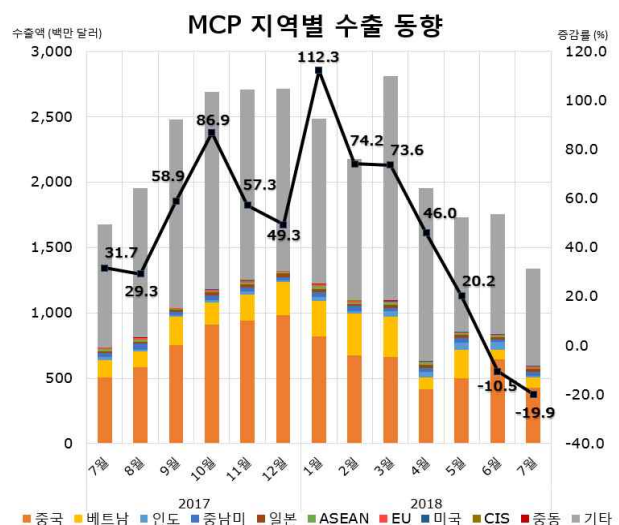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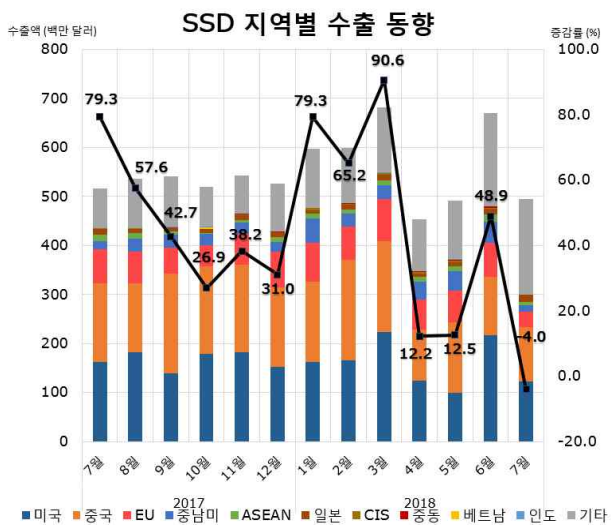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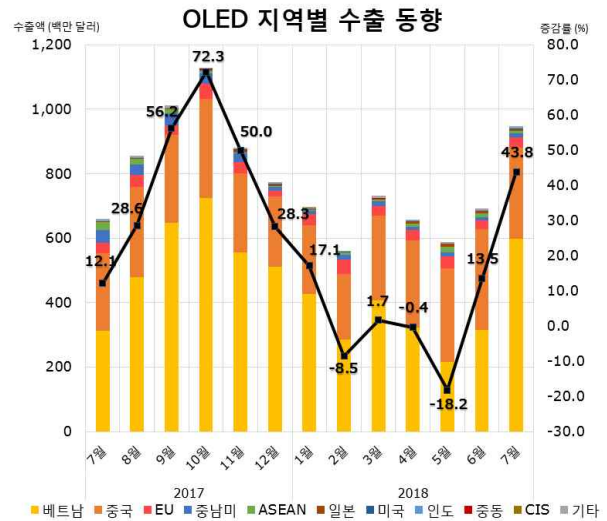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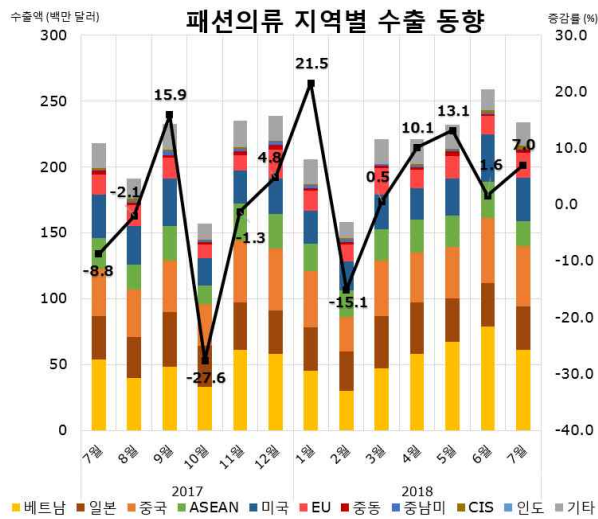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별 수출 동향

(ASEAN은 베트남 제외된 수치, 증감률은 품목별 총수출 기준)











작성자

- | | |
|--------------|---------------|
| ◆ 중국지역본부 이성호 | ◆ 동남아지역본부 원준영 |
| ◆ 북미지역본부 차성욱 | ◆ 유럽지역본부 김선우 |
| ◆ 호치민무역관 황홍구 |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 중동지역본부 오현택 |
|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 CIS지역본부 최진형 |
| ◆ 무역정보팀 김건숙 | |



Global Trade Report 18-010

2018년 7월 수출 동향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정보팀
 (02-3460-7418)

ISBN : 979-11-6097-768-4 (95320)



2018년 7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